

# 최태원 10년 전 제안한 ‘사회성과인센티브’, 다보스서 호평

(SK그룹 회장)

사회성과 비례 현금인센티브  
올 다보스서 성공모델로 평가  
“SK ESG경영, 독창적·효과적”



최태원 SK 회장이 지난 2013년 1월 다보스포럼 ‘임팩트 투자’ 세션에서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SK식 전략과 비전을 설명하고 있다. /SK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추진해 온 ‘사회성과인센티브(Social Progress Credits·SPC)’가 올해 다보스포럼에서 호평받았다. SPC는 사회적기업들이 창출하는 사회성과에 비례해 현금 인센티브를 제공하지는 의미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0년 전 처음 제안한 방식이다.

최 회장은 지난 2013년 다보스포럼에서 사회적기업들이 창출하는 ‘사회성과’에 비례해 ‘현금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회성과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제계 리더들에게 처음으로 제안한 바 있다.

24일 SK그룹에 따르면 다보스포럼을 주관하는 세계경제포럼(WEF) 사무국은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회적

기업들과의 협력이 어떻게 대기업들에게 지속가능 혁신의 방안이 되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기사(Agenda article)를 통해 대표적인 성과 사례로 SK의 사회성과인센티브와 세계 최대 맥주회사 안호이저-부시 인베브(AB InBev)의 스타트업·소셜혁신기업 펀딩 프로그램

을 소개했다. 사무국은 “글로벌 선진 기업들은 전통적 CSR(사회적책임)에서 탈피, 사회적기업과의 파트너십으로 소셜 임팩트 창출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목표 달성에 나서고 있다”며 “특히 SK는 사회적기업들이 창출하는 사회적가

치에 비례해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독창적이면서도 효과적인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해왔다”고 평가했다.

사무국은 이어 “이로써 SK는 정보기술(IT)에서 농업까지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기업들이 지속가능 사회를 위한 더 큰 소셜 임팩트를 창출하는데 도움을 줬다”고 말했다. 사무국은 특히 “사회적기업들이 창출한 사회적가치 측정 관련 노하우는 SK의 사회적가치 측정 방법론을 발전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됐다”며 “이 같은 측정 결과 SK그룹의 2021년 사회적가치 창출 총량은 전년 대비 60%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사무국이 최 회장의 아이디어로 출발한 사회성과인센티브가 결국 사회적기업 생태계 자생력을 키우는 동시에 사회적가치(SV) 창출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를 올려왔다고 평가한 것이다.

SK그룹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26개의 사회적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사회성과인센티브를 운영한 결과 ▲일자리 창출 ▲사회 서비스 제공 ▲환경문제 해결 ▲생태계 문제 해결 등 4

개 분야에서 총 3275억원의 사회성과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SK그룹은 인센티브로 총 527억원을 사회적기업들에 지급했다. 재원은 SK가 설립한 사회적기업 ‘행복나래’와 SK 멤버사들이 낸 기부금으로 마련됐다.

이런 성과에 국제 경영학술계도 주목하고 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이 발간하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HBR)’는 지난 2020년 1월 ‘SK그룹: 사회성과인센티브(SK Group: Social Progress Credits·SPC)’ 사례연구를 게재했다. 정선문 동국대 교수(회계학)와 신재용 서울대 교수(경영학)가 사회성과인센티브의 효과성을 다룬 논문도 세계 최고 권위의 ‘매니지먼트 사이언스(Management Science)’에 지난해 10월 게재됐다.

비영리연구재단인 사회적가치연구원(CSES) 관계자는 “사회적가치연구원은 경기도 화성시와 사회적기업 지원 정책 협력사업을 추진중이고, 사회성과인센티브 국내외 확산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 김포시 공고 제 2023-174호

# 김포 유현지구 구역지정(2차) 및 개발계획(2차) 변경, 실시계획(1차) 변경 인가 공람공고

경기도 고시 제2020-176호(2020.09.10.), 김포시 고시 제2021-230호(2021.09.30.)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되고, 경기도 고시 제2022-119호(2022.06.03.)로 실시계획인가된 김포시 풍무동 520번지 일원 김포 유현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 수립을 변경하고, 같은 법 제17조에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를 변경하고자, 동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25일  
김포시장

1.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의 개요(변경)
  - 가. 사업명: 김포 유현지구 도시개발사업
  - 나. 위 치: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520번지 일원
  - 다. 사업면적: 기정 149,424㎡ → 변경 151,170㎡ (증 1,746㎡)
  - 라. 수용규모: 2,020세대 / 5,333인
  - 마. 사업기간: 실시계획인가일 ~ 한지처분일
  - 바.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			구성비(%)	비고	
	기정	증감	변경			
<b>합계</b>	149,424	증) 1,746	151,170	100		
<b>주거용지</b>	소계	94,484	-	94,484	62.5	
	공동주택	85,244	-	85,244	56.4	
	근린생활시설	4,730	-	4,730	3.1	
	준주거	4,510	-	4,510	3.0	
<b>종교용지</b>	종교용지	2,337	-	2,337	1.5	
<b>도시기반시설용지</b>	소계	52,603	증) 1,746	54,349	36.0	
	도로	11,758	증) 1,746	13,504	8.9	하천중복결정
	보행자전용도로	1,543	-	1,543	1.0	
	주차장	1,340	-	1,340	0.9	
	공원	17,112	감) 1,674	15,438	10.2	유수지중복결정
	녹지	6,513	-	6,513	4.3	
	하천	14,337 (460)	-	14,337 (460)	9.5	도로중복결정
	공공청사	-	증) 1,674	1,674	1.1	
	유수지	(660)	-	(660)	-	공원중복결정

사. 사업비: 기정 68,936백만원 → 변경 141,449백만원

2.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제안자) 및 시행방식(변경없음)
  - 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제안자)
    - 성명: 김포 풍무유현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허진욱)
    - 주소: 경기도 김포시 유현로 52, 305호(풍무동, 프라임빌복합상가)
    - 나. 시행방식: 한지방식
3. 공람 및 의견제출기간: 게재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공휴일 포함)
4. 공람장소 및 의견제출기관
  - 김포시청 도시계획과(031-980-2449), 풍무동 행정복지센터(031-5186-3657)
5. 「도시개발법」 제5조 등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 내용은 지면관계상 생략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람장소에 관계도서 일체를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UAE·다보스 성과 잇는다 산업부, 수출 촉진 현장행보

연초~내달 초까지 현장행보만 94건  
간부들 주 1회 이상 현장 방문하고  
후속 수출·투자 확산 위해 논의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과 다보스포럼 계기 경제외교 성과를 수출·투자 촉진으로 확산하기 위해 현장행보를 대폭 강화한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현장 산업부’를 강조했으며, 이에 따라 연초부터 오는 2월 초까지 계획된 현장 행보만 94건에 이른다.

장·차관과 실·국장 등 간부들은 주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고, 일선 직원들도 수출·투자·규제 현장을 찾아 경제활력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한다.

먼저 이창양 장관은 UAE 순방계기 61억달러 규모 MOU와 계약 체결 등 경제협력 고도화에 나섰다 오는 26일 산업대전환 운영위원회 개최에 이어 2월 중엔 한·중동 경제협력 민간추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장영진 1차관은 지난 18일 디스플레이 업계 간담회에 이어 반도체와 배터리, 자동차 조선, 기계 등 10대 업종, 5대 기능 릴레이 간담회를 매주 개최하고 있으며, 박일준 2차관은 19일 과천 L-PG-수소 융복합 수소중전소 현장 방문에 이어 24일 서울복합 발전소와 중부발전소를 방문해 전력수급 현장 점검에 나섰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9일 다보스 계기 투자원활화 통상장관회의 주재에 이어 내달 2일엔 대 유럽연합(EU) 통상현안 점검과 업계 지원을 위한 민간협력 대책단을 출범한다.

특히, 올 한해 역점 추진해야 할 수출 플러스, 투자주도 성장, 규제 일망타진,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현장을 집중적으로 찾아가야 계획이다.

글로벌 수요부진과 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1월 수출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UAE 순방성과를 수출확대와 다변화 기회로 적극 활용하기 위한 행보를 강화한다는 설명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20일까지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7%를 기록한 반면, 수입은 +9.3%를 기록 새해 첫 달부터 무역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산업부는 자동차 전용 운반선 부족, 조선업 인력수급 차질 등 수출애로를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반도체와 진단키트 등 올해 업황이 좋지 않은 기업과 대책을 검토하고, 방산, 에듀테크 등 수출유망 기업과도 수출확대 전략을 논의하기로 했다.

UAE 순방 후속 수출확대를 위해 오는 2월 통상협력국장이 비즈니스상담회 1100만달러 수출성약이행을 점검한다. 원전·전력, 방산, 보안,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등 조기 수출방안을 논의하고, 상담회 참여기업을 방문해 애로 사항 점검에도 나선다. 이어 제조산업 정책관이 내달 2일 첨단제조 이니셔티브 후속 간담회를 열고 디지털전환, 모빌리티, 항공우주, 부품소재 등 분야별 협력수요를 발굴할 계획이다.

자동차 부품공장과 차세대배터리 연구설비, 바이오 제조공장 등 대규모 투자현장도 방문해 투자 진행상황과 애로를 점검하고 올해 약 100조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적극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